300년 만에 돌아온 세계유산 대법당

日 코후쿠지 중금당 재건… 일반공개 실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고찰 코후쿠지(興福寺)의 중금당 재건이 완료, 일반 공개가 시작됐다. 지난 10월 2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코후쿠지 중금당의 일반 공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창건된 법상종의 대본산으로, 199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중금당은 코후쿠지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법당이지만 소실과 재건을 7번 반복한 끝에 17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지 못했다. 코후쿠지는 화재 속에서 모셔진 불상들만을 구출, 원래의 중금당터에 임시금당을 세우고 재건을 발원했다.

그러나 임시금당도 노후화로 누수와 붕괴위험이 일자 마침내 재건불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30여 년 전부터 기금 마련과 연구조사 등이 시작돼 마침내 2010년 임시금당의 철거와 발굴조사 후 2011년 중금당 재건불사가 착공했다.

재건은 발굴조사에 근간해 중금당이 최초로 세워졌던 나라시대의 초석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또 금당 전체에 붉은 칠이 되어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모든 기둥에 붉은 옻이 칠해졌다. 지붕의 치미는 특별히 금을 입혀 장엄했다. 좌우 37m, 높이 21m의 거대한 법당을 짓기 위한 재목을 일본에서 구할 수 없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등의 고충이 많았다.



야간 라이트업을 한 코후쿠지 중금당.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소실과 재건 반복만 8번
좌우 37m, 높이 21m 등
법당 짓기 위해 목재 수입
11월 11일까지 야간참배도

지난 5월 말 비공개로 점안법회가 봉행된 후 모든 공정은 10월 초 완료, 지난 10월 7일부터 5일간 일본 주요종단의 스님들을 초청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과 함께 그동안 강당에 봉안했던 불보살상들을 모두 원래의 자리로 이운했고,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은 새롭게 개금불사가 완료됐다.



코후쿠지의 본존불(석가여래좌상).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의 아악(雅樂)과 궁중무용 등을 공연하며 전통방식을 따라 봉행된 낙성법회는, 특별히 마련된 법좌에서 법상종의 교의에 대해 토론하는 수의(竪義)의식까지 진행됐다.

낙성법회에서 부처님전에 고불문을 봉독한 코후쿠지의 관수(貫首) 타가와 ˇvv에이 스님은 "충실하게 복원됐음을 온 몸으로 느껴주시길 바란다"며 재건의 감동을 전했다. 법회에 참가한 참석자들도 "300년 만에 재건된 금당과 낙성법회 모두 여법해 환희가 넘친다"고 감사을 전했다.

20일 오전 9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의 첫날부터 재건된 중금당을 보기 위한 참배객들로 경내는 장사진을 이뤘다. 1시간 넘게 기다려 가장 먼저 중금당에 들어선 카지타니 케이지 씨는 "높은 천장과 넓은 법당 전체에 화려한 붉은 칠이 되어 있어 너무나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참배를 위해 도쿄 근처에서 일부러 왔다는 신도는 "이날만을 계속 기다려 왔다. 재건된 법당에서 부처님과 눈을 맞추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재건의 기쁨을 표현했다.

코후쿠지 측은 재건기념에 맞춰 11월 11일까지 야간 참배와 라이트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평소에 공개되지 않았던 호쿠엔도(北円堂)와 비공개였던 국보급 불상들도 공개한다.

천년고찰에 불교만화 '한가득'

日 미에현 사찰서 불교만화 도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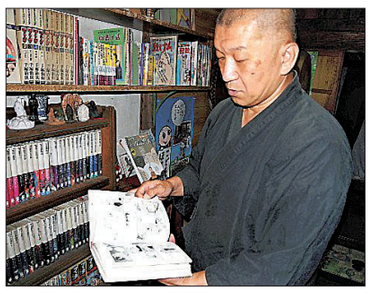
만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은 불교나 종교를 소재로 한 만화도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만화와 종교소재 만화를 한데 모은 도서관이 개설돼 화제다.

지난 10월 1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만화 도서관을 연 미에현의 사찰인 콘고자지(金剛座寺)를 소개했다.

법당 한 편에 마련된 서가에 빼곡히 꽂힌 만화책들. 약 350종 700권에 달하는 장서는 모두 불교나 종교와 관련된 만화책이다. 주지인 소메카와 유지(52) 스님은 "어릴 때부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30년 전부터는 직접 불교만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며 "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싶다"고 도서관을 연 계기를 설명했다.

일본사찰에서 불교만화 도서관을 개설한 것은 도쿄 소재의 사찰 다몬인(多門院)을 이어 두 번째. 그러나 장서 수는 콘고자지가 더 많다고 한다. 유명만화가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오기노 마코토의 〈공작왕〉 등은 물론 가톨릭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전기 만화까지 폭 넓은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현재 장서의 대여는 불가하지만 관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지 스님은 "도서관을 열게 된 것은 절을 부흥하기 위해 시도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콘고자지는 7세기경에 세워진 고찰로 2차 대전 전에는 7개의 말사를 거느리던 지역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사세가 기울어 약 30년 전 주지스님이 입적한 후 무인사찰로 황폐해졌다.



장서를 살펴보고 있는 주지 소메카와 유지 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유지 스님은 원래 콘고자지의 신도였다. 도쿄에서 일하던 스님은 천년고찰이 이대로 스러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 받아 콘고자지의 주지로 오게 됐다. 스님은 "1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단수와 단전은 물론, 모든 건물이 누더기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금도 절의 신도는 단 여섯 가구뿐이다.

스님은 "그래도 만화도서관이 세워졌단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만화는 그림과 짧은 문장만으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하는 힘이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며 "만화를 통해 불교의 세계를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부도탑, 美 도움으로 재탄생

AFCP 프로젝트로 4300여만 루피 모금

라자갈라 사원 중심으로 동굴-주요 구조물 복원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AFCP(the Ambassadors Fund for Cultural Preservation)를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불교 사리탑 복원이 완료됐다고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가 선언했다.

해당 부도탑 복원식에 대사관을 대표해 참석한 공보관 데이빗 맥과이어(David McGuire)는 "2013년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약 4300만 루피가 모금됐다"고 밝혔다고 스리랑카 주요 인터넷 관보 콜롬보(colombogazette)가 지난 10월 17일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라자갈라(Rajagala) 불교 숲 사원에 속한 동굴 주거지, 기념물, 건물 등의 보존 및 복원 작업이다.

특히 불교 사리탑, 일반 건축물, 명상 그림이 있는 동굴 및 중요 구조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복원했다. 여기에 스리랑카 동부 지방에서 최초로 진행된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도 진행됐다.

맥과이어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불교 유적지가 복원돼 기쁘다"면서 "라자갈라 유적은 스리랑카에서 인류 역사의 폭을 넓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AFCP를 통해 복원된 불교 사리탑 모습.

사진출처=스리랑카 미 대사관 홈페이지

AFCP는 200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불교 사원, 아누라다프라(Anuradhapura) 박물관 종교 관련 소장물, 바티칼로아 네런란드령 요새(Batticaloa Dutch Fort) 등 13개 보존 작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불교 공동체 · 타밀 · 원주민 음악과 의식 등 무형 문화재에 대한 보존도 포함한다.

한편 로버트 힐튼 대리대사는 10월 5일 자프나 대학과 제휴를 맺고, 스리랑카의 고대 힌두교 및 기타 유물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AFCP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문화 유적 및 유물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미얀마 불교계, 마약 거래 문제로 '시끌'

스님들이 사원서 메탐페타민 등 거래하다 적발

불교 승려 2명 등 4명의 미얀마 남성이 불교 사원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만달레이 경찰에 체포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현지 경찰은 만달레이에 위치한 찬미야타지(Chanmyatharzi) 명상 센터를 지난 10월 15일 급습해 설법대와 책꽂이 등에 숨겨진 약 4190만 개의 메탐페타민을 압수했다. 메탐페타인은 중추 신경을 흥분시키는 마약류다.

이날 체포된 아신 알시나(Ashin Arsina · 52) 스님은 13년간 승려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마약 거래를 위해 스님으로서 지위를 이용했다고 간주한다. 현재 그는 구속됐으며 마약방지법에 따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마약이 명상센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정부 정보에 따른 것이다.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불법 약물 거래 관련 정부 및 지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즉시 알려 빠른 시간에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들이 알지 못하는 마약 남용 사건이 많다"며 "정부가 마약 남용 신고를 권유한 덕분에 마약 불법 거래자들을 상대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현재 마약 거래자들이 사원 안에서 불법적 활동을 위해 승려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교 승려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와 불교 공동체에 추악한 얼룩이다. 이렇게 위장한 범인들을 우리(경찰)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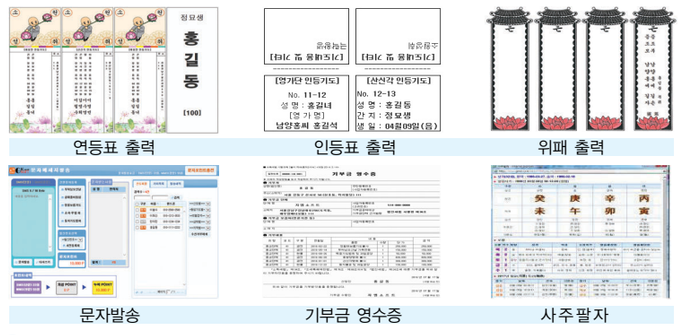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